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조약 극복의 가능성과 한계

한승훈(고려대학교)

【발표요지】

19 세기의 조선, 일본, 청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적 용어는 불평등조약이다. 세계의 주요 사전도 불평등조약을 19 세기 조선, 일본, 청국이 타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9 세기 동아시아 3 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자국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80 년대 초반 일본, 조선, 청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구축한 불평등조약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의 예비회담을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다.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 개정과 서구열강과의 불평등한 내용이 배제된 조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열강의 조약체결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불평등한 내용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조선이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과 서구열강의 체결한 조약의 개정을 기획했다. 이상과 같이,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에 서구열강이 관철시킨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의 움직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본 발표문은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 삼국의 불평등조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가능성이 가지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약력】

한국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19 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군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정립과 균열」으로 박사 학위 취득. 주로 근대 시기 한국과 서양 열강의 관계 정립 및 전개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역사 속에서의 한국인의 삶과 궤적에 관심이 많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변경의 접촉지대<삼도(三島)>, 그리고 거문도(巨文島)의 탄생」, 「1920 년 동아일보의 아일랜드 독립전쟁 보도태도와 그 의미」, 등의 논문과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공저), 『3.1 운동 100 년』(1·4)(공저) 등을 집필했다.